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D-5

우리도 함께 씩~씩

호남 최대의 자전거 축제인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14일 금호 패밀리랜드 주차장에서 스타트 총성을 울린다. '녹색성장의 아이콘'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동호인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동호회를 소개한다.

‘자전거 데이트’ 건강을 지켜요

■ 광산mtb

자전거로 건강도 지키고, 여행도 즐기고, 친목도 다진다.

지난 7월로 창단 한 돌을 맞이했던 광산 mtb(회장·나관수)의 슬로건이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가 이젠 전국 명소를 찾아 산으로, 들로 자전거 두바퀴가 굴러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매니아가 되어버렸다.

전국명소 찾아 산으로 들로

광산mtb는 지난해 7월 평소 자전거 모임을 가져오던 나관수(48)씨 등 10여명이 라이딩의 짜릿함을 더 많은 사람과 느껴보자는 취지로 공식 모임을 결성해 탄생했다.

창단 1년을 갓 넘은 현재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동호인들이 광산

mtb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열성 회원도 40여명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자전거 행렬은 길어져 가고 있다.

이들은 매주 화·목요일엔 오후, 토·일요일엔 오전에 라이딩(riding·자전거를 타는 것)을 즐기고있다. 코스는 주로 어등산이나 나주금성산 혹은 송산유원지를 지나 영광지방향도로~나주간 도록~공항주변 뚝길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끔 광주를 벗어나 원정라이딩도 나선다.

회원은 초등생부터 50대까지 남녀노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회원 중 51세의 김현수씨가 최고령이고, 송정서초 김한승군이 12세로 가장 어린 회원이다.

부부가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회원도 5쌍이나 된다. 이들은 주위의 부러움 속에 매주 ‘자전거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대표주자로 자부하면서 부부회원 늘리기에 앞장 서고있다.

모임의 매니저로 통하는 김희권(41)씨는 경륜 경험이 있는 프로 출신으로 지금까지 30만km이상을 두바퀴로 달리는 ‘자전거 달인’이다. 김 씨는 기본자세와 페달링 등 그간 쌓인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전수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이끌어 오고 있다.

100여명 회원 주말 라이딩

매주 꾸준한 라이딩으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회원도 상당수이다.

나관수 회장과 김희성·전승기 회원은 아일랜드켈린지대회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또한 김희권·이미진씨도 국내대회에서 1위를 거둔 실력파들이다.

창단 1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커가고 있는 광산mtb의 은론의 질주는 끝없이 계속 될 것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창단 1년된 신생팀 광산mtb는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닦은 기량 테스트와 함께 회원 확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엔 송보배가 ‘보배’

HSBC에선 미켈슨 우승

우즈 6위·양용은 33위

미즈노 클래식 우승... 신지애 5위

한국 여자골프 올해만 LPGA 11승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는 송보배(23)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노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내년 시즌 출전권을 확보했다.

송보배는 8일 일본 미에현 시마의 건데스 가시고지마 골프장(파 72·6천50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며 함께 15언더파 201타로 2위 그룹을 3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올 시즌에도 LPGA 투어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단은 송보배까지 우승자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11승을 합작해 2006년 11명의 선수가 11승을 거뒀던 시즌 최다승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상(최우수선수상)을 받고 2007년부터 일본 무대에서 활동해온 송보배는 지난 해 4월 한국대회에 출전했다가 경기위원의 관정에 불만을 품

고 기권하는 바람에 KLPGA로부터 출전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송보배는 지난 10월 일본 메이저대회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데 이어 최근 KLPGA로부터 사면(사면)을 받은 뒤 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하며 최고의 한해를 맞았다.

단독 선수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은 송보배는 선두 그룹 선수들이 뒷걸음질치는 사이 전반에만 2타를 줄였고 후반들어서도 13번홀까지 버디 3개를 추가하며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송보배는 14번홀(파4)에서 3라운드 첫 보기를 적어내며 잠시 주춤했지만 맹추격을 펼치던 박희영(22·하나금융)이 마지막 홀에서 1타를 잃고 경기를 마쳐 힘들이지 않고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박희영은 12언더파 204타를 쳐 공동 2위에 올랐고 지난 해 우승자이자 올해의 선수상을 노리는 신지애(21·미래에셋)는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신지애의 경쟁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둘러 공동 2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오초아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 143점으로 1위 신지애(147점)를 4점차로 바짝 추격했다.

신지애는 시즌 상금 170만8천달러로 1위 자리를 지켰고 공동 17위(8언더파 208타)를 차지한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146만8천달러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세계랭킹 2위 필 미켈슨(미국)이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 챔피언스에서 2년만에 우승컵을 되찾아왔다.

2007년 우승자 미켈슨은 8일 중국 상하이 서산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7천199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어니 엘스(남아공), 타이거 우즈(미국) 등 맹렬한 추격전을 펼친 강호들을 따돌리고 함께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우방암을 앓고 있는 아내 때문에 마음 고생을 했던 미켈슨은 한 때 대회 출전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올 시즌 4승을 올리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엘스는 마지막날 무려 9타를 줄였지만 앞선 라운드의 부진을 만회하지 못하고 1타차 2위(16언더파 272타)를 차지했고 우즈는 후반에 맹렬한 기세로 추격했지만 공동 6위(12언더파 276타)로 대회를 마쳤다.

제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2타를 줄이며 함께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마지막날까지 교포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버디쇼를 펼치며 최선을 다했다.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쓸어담은 양용은은 비록 우승권에는 근접하지 못했지만 공동 33위(3언더파 285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뉴질랜드 교포 이진명(19·캘러웨이)은 공동 66위(7오버파 295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KIA, 요미우리와 붙는다



14일 한·일 자존심 대결 앞두고 사기충전

양현종 선발 낙점...“단판 승부 승산있다”

‘최고의 흥행카드’ KIA 타이거즈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한·일의 자존심을 걸고 한 판 대결을 벌인다.

요미우리가 7일 니혼햄과의 일본시리즈 6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에 따라 12년만에 ‘V10’의 꿈을 이룬 ‘한국 전통의 강호’ KIA와 7년만에 패권을 차지한 ‘일본의 자존심’ 요미우리가 14일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한일팬퍼먼시리즈에서 맞붙게 됐다.

KIA는 1982년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후 10차례, 요미우리는 1936년 문을 연 일본프로야구 무대에서 21번 우승을 차지해 양국의 최다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올 시즌 21차례 홈경기 매진을 기록한

KIA는 원정경기 관중동원력 1위를 차지한 전국구 구단. 요미우리도 홈경기 평균 관중수가 4만이 넘는 일본 최고의 인기구단이다. 앞선 4차례의 아시아시리즈에선 삼성과 SK가 한국대표팀으로 나섰지만 우승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팬퍼먼이 맞붙는 한일시리즈로 변경된 이번 대회에서 KIA는 정규시즌, 한국시리즈에 이어 ‘트리플 우승’을 노리고 있다.

관객적인 전력은 KIA가 한 수 아래다. 실상가상 전력의 핵심 로페즈·구본수는 출국했고, WBC의 스타 이용규와 윤석민은 군사훈련때문에 불참한다. 안방마님 김성훈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KIA는 단판 승부인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를 상대 팀으로 점찍어두었던 조병현 감독은 선수

들에게 ‘무조건 이기라’는 특명을 내렸다. 12년만의 우승으로 팀분위기도 좋다.

KIA의 2009년을 좌우했던 ‘한방’의 힘은 여전하다. 7일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LG와의 연습경기에서 한국시리즈의 영웅 나지완은 선제 솔로홈런으로 팀의 5-3 승리를 이끌었다.

손가락 부상으로 늦게 훈련을 시작한 김성현도 7회 대타로 나와 중앙타장을 맞추는 커다란 2루타를 터트렸고, 한국시리즈 최연소 홈런의 주인공 안치홍은 4타수 3안타 1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신에 좌완 양현종의 임무가 막중하다. 한 일전 선발로 내정된 양현종은 7일 5이닝동안 안타 없이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제구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일본의 우승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완벽한 제구가 필요하다.

일본 정벌에 나서는 정예요원들은 9일 우승축하행사에 참가한 뒤 10·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막바지 훈련을 진행한다. 10일에는 자체 청백전을 갖고 경기 감각을 조율한다.

/남해=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가 한일팬퍼먼시리즈에 대비해 7일 남해 스포츠 파크에서 LG 트윈스와 연습경기를 가졌다.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운 KIA는 4회 나지완의 솔로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으며 5-3으로 승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